
第126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交通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1年4月18日(水) 午前10時

場所 交通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駐停車團束擔當公務員制服에關한條例案
 2. 交通管理室所管懸案業務報告
 3. 地下鐵建設本部所管業務報告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駐停車團束擔當公務員制服에關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2. 交通管理室所管懸案業務報告 ... 7面
 3. 地下鐵建設本部所管業務報告 ... 48面
-

(10時 30分 開議)

○委員長 金喜甲;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車東得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의 교통난은 우리 의회와 시가 그 동안 시책의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해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930억원을 예산에 반영,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도로나 교통기반시설의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교통수요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서울의 교통여건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급격히 증가한 자동차의 문제도 있겠지만, 도로의 소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버스전용차로의 운영개선, 그리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각 지역에 걸맞는 교통환경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교통시설을 빨리 개선하고 지역환경에 맞는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로의 소통률을 최대한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시책들이 일관되게 시행되어 서울의 교통문제가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서도 서울시와 노사간 최대한 협조하고 양보해서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고 현안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駐停車團束擔當公務員制服에關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0時 31分)

○委員長 金喜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駐停車團束擔當公務員制服에關한條例案을 성정합니다.

(議事棒 3打)

본 조례안은 주차단속 공무원의 복장, 모자, 신발 등 제복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존경하는 金喜甲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좋은 계절에 지난달에 이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고 교통관리실 관련 서울特別市駐停車團束擔當公務員制服에關한條例 제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른 주요 진입로의 교통류 개선과 이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정비, 그리고 25개 노선의 공항버스의 운행 등 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항 후 공항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시 교통정책은 연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은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 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은 지금까지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설계를 추진중이거나 사업자 선정단계에 있으며 전년도에 계속되어 온 사업들은 계획 공정대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교통관리실 간부들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각종 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해서 보다 내실 있는 교통시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서울特別市駐停車團束擔當公務員制服에關한條例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우리시 지침으로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이 제복을 착용토록 하였으나 98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단속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도화됨에 따라 단속공무원의 복장과 모자, 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지급근거와 방법을 통일하고 이를 착용토록 함으로써 단속공무원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단속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복의 종류를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에 규정한 주차단속직류 지방조무원의 경우는 하복, 동복, 춘추복, 방한복, 모자, 신발로 하고 그 외 공무원의 경우는 모자와 완장으로 하였으며 제복의 계절별 착용기간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 등에 제복을 착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중 단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이 조례에 규정된 완장을 착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질서확립을 위

해 실시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장과 구청장이 단속권을 공유하게 되며 단속 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변경이 시행되기 전에 제복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단속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喜甲;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서울特別市駐停車團束擔當公務員制服에關한條例案 檢討報告書

(뒤에 실음)

.....

○委員長 金喜甲;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林東奎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東奎 委員; 林東奎委員입니다.

단속 공무원의 복장은 사실은 좀더 일찍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옷이 하복, 동복, 춘추복, 방한복 이렇게 너무 세분화하면 지금도 그렇고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동복과 방한복 차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좀 하시지요.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정이 늦어진 것은 그 동안 시의 입장에서는 단속권 자체가 없고 단속공무원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것이 죄송합니다만, 그 동안에 그 부당성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경찰청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장과 구청장이 단속권을 공유하고 단속공무원을 확대하니까 앞으로 시도 단속공무원을 임명해야 되고 자치구에도 일정한 표준복장을 입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현장에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물으신 동복과 방한복의 차이는 동복은 겨울에 안에 입는 제복이고 방한복은 그 위에 겹쳐 입는.....

○林東奎 委員; 그러면 반코트,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네.

○林東奎 委員; 알겠습니다.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 보통 평상복을 아무리 두껍게 입어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林東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喜甲;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애당초 도로교통법 98년도 12월 31일에 개정되어서 공무원 제복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그래서 한 2년 정도 늦어진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납득이 안되는데 행정예조

금 잘못이 있었던 것이지요?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네, 어쨌든 간에 준비는 해 놓았어야 하는데 그 동안은 사실 시행령 개정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제복조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委員長 金喜甲;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서울特別市駐停車團束擔當公務員制服에關한條例案

(뒤에 실음)

2. 交通管理室所管懸案業務報告

(10時 42分)

○委員長 金喜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관리실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車東得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교통관리실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교통관리실장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報告)

交通管理室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喜甲;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具哲會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具哲會 委員; 具哲會委員입니다.

참 갈수록 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무겁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 가시는 우리 교통관리실 전체 직원들한테 감사의 뜻을 우선 전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 개통식을 즈음해서 본위원은 혼자 속으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혹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했는데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이 지금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가 없지는 않겠지만 본위원이 직접 체험을 한 이야기를, 국제공항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착오가 있겠지만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버스 외부에 보면 어느어느 행선지가 일률적으로 다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또 무역센터에서 도심 공항, 인천공항,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운행을 합니다. 운행하는데 그 공항에 손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가서 마중을 가서 설명을 열심히 하고 시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노라고 해서 PR을 하고 차를 탔는데 차 곁에 표기된 것은 도심공항에서 인천공항 직접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탔는데 이것이 김포공항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 직접 가야지 왜 이리 가느냐 그랬더니 좌석 운전석 옆에다가 이만하게 조그맣게 종이에다 써서 붙였어요, 안에다가 김포공항 경유. 그래서 야,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야 이해를 하는 대목이지만 이런 것을 좀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계도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표준회계제도를 실시해서 현재 60개 버스회사로부터 매달 보고를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역시 생각이 옳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에만 표준회계제도를 실시하지 말고 공항버스에도 합시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교통관리실장님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봤더니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는 것 같아

요. 그런데 실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부터 실시를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60개 업체에 작년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서울시의 표준회계제도를 보고해서 집계한 것이 있을 겁니다. 월별 매출 총계, 비용총계, 손익총계 이것을 세분화해서 보고한 것이 있을 텐데 지금이 벌써 4월이 되었으니까 업체별로 세무보고도 다 끝났을 것이고 하니까 그것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임시회 때 교통관리실장님께 문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부에서 체불임금발생 업체들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있느냐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그것을 질문을 드렸더니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각 업체별로 계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장기저리 자금을 쓰는 업체가 지금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喜甲; 다음 趙成大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成大 委員; 趙成大委員입니다.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한참 브랜드택시로 인해서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어느 때 살그머니 들어가버리더니 브랜드택시가 아주 완전히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서울시 하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인데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반대토론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시작해서 위원회에서 여러 번 브랜드택시 때문에 토론도 있었는데 이것이 그 사업을 양게 되면 위원회에다 보고도 하고, 또 늦으면 왜 늦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전연 거기에 대한 위원회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콜택시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어서 2년 13억씩 예산을 계속 세워서 해주었습니다. 월드컵 관계도 아까 실장도 말씀하셨는데 불과 1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미 지금 됐으면 7만대가 콜이 다 장착이 돼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유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천국제공항 개통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기지로 지금 여러 가지 보고상 나온 것이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 서울에 살면서 기업을 하는 모든 분들은 전연 지금 물류산업에 대한 대책이 안 서 있고,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추진을 하겠다, 뭐 언제 고시를 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장으로서 과연 그래도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밝은 분이 지금 실장으로 와서 3년간 재직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지 의아스러워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이 늦어간다고 할 적에 과연 우리가 동북아 물류기지로서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또 교통은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체계 있고 앞으로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9월 27일에 시정질문해서 시장께서 답변 하셨습니다. 1개 구에 최소한도 3,000평에서 4,000평 정도 지금 전자상거래 때문에 보관소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임기가 1년 조금 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그렇게 시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일을 실장이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지금 계획을 안 세우고 무대책으로 간다고 할 적에 시장 답변이 허위공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적에 부하직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난번에 마을버스 관계로 조례를 통과 시키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례로 인해서 각 구에서 지금 마을버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다시 없앤다든지 해서 정말 구민들, 기초 단체의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교통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해서는 안될 조례를 만들었을 적에 우리가 버스회사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버스도 대중교통이다 이거야,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자꾸 조례를 만들어놓고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시민들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조례는 다시 폐기를 해야지요.

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마을버스로 인해서 각 자치구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 직원이 그래요. 위원님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도 어처

구니가 없어서 내가 오늘 실장한테 질의를 하마 그랬습니다.

서울시 교통관리실에 있는 직원이 위원님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돼서 위원들이 여기에 나와서 어떻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하겠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실장은 알고, 또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팀장이야, 무슨 마을버스 대중교통팀장이라고 그래요. 이름은 명함을 받아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래 가지고는 상임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자체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교통관리실장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든지, 위원회에 올려서 무조건 통과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다시 폐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을 관장하는 실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喜甲; 다음은 金東郁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郁 委員; 저는 간단하게 우리 도로표지판 문제, 민원성 및 주민들 관계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가다 보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도 되는데, 의정부로 가다 보면 수락산쪽에, 노원구쪽에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그래도 명산 하면 도봉산이 꼽히는데 도봉산이나 도봉산역에 대한 표지판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가 봤더니 고가 위로 가면 의정부로 바로 빠져 버리고, 밑으로 도봉산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표지판이 하

나도 없더라고요.

특히 휴일에는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인천 길병원에 상가가 있어서 저녁 11시에 종로에서 출발을 했어요. 늦게 출발해서 택시를 타고 가다 보니까 행주대교쪽에 인천 전용도로로 들어가 봤어요, 택시를 타고. 메타기를 꺾고 죽 가 봤는데 이것이 개암인가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도로로 가다 보니까 빠지는 톨게이트가 하나도 없어요.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없습니다.

○金東郁 委員; 그러니까 인천을 가려는 사람이 구도로로 가는 길이 있고, 저는 그 길로 가는 데가 있는 줄 알았어요. 택시기사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톨게이트에서 회차를 해서 오는데 6,1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1만 5,000원인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차를 또 기사가 잘못해 가지고 바깥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안쪽으로 도는 바람에 6,100원을 더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릴 수도 없고 안 내릴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주고 왔어요. 주고 왔는데, 물론 서울시하고 전혀 연관이 없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고속도로 조금 달리는데 6,100원이면 서울에서 중부나 경부를 타고 가면 전라도로 따지면 대전을 지나고 금마, 전주쪽 이 정도 되는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도로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택시기사들, 결들여서 뱅택시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뱅택시가 공항을 이용하는 다수의 손님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

게 한다고, 많은 짐도 있고 이런 취지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택시기사 가면서 한 시간 내 욕하는 것이 무슨 소리냐, 택시기사들이 안 간대요. 인천 국제공항 띄엄띄엄 한 대씩 여기 가서 돈 남을 리도 없고, 안 간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과 더불어서 밴택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가, 어제 겪어 보니까 실제로 그게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부분이 서울시하고, 지금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지 하고, 서울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趙成大委員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을버스 때문에 제가 아주 죽겠어요. 특히 저희 지역도 마을버스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84번이 고급형 좌석버스였다가 84-1번 동아운수로 해 가지고 가격이 600원대로 내리는 도시형 순환버스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조레가 바뀌다 보니까, 동아운수가 자본금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로 완전히 다 이렇게..... 누구나 신고만 하면 되니까 실제로 내실 있게 꾸려나가는 있는 마을버스가 지금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앞으로 대책이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실 있게 꾸려가는 소규모 회사들에 대한 보호대책이라든가 향후 대책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喜甲; 다음 金鍾來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來 委員; 金鍾來委員입니다.

지금 각 구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데에는 동의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어떤 부분이나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구획선 내에 그 차가 등록을 해서 등록된 번호만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차가 이동을 했을 때 업무차, 아니면 어떤 다른 불일이 있어서 그쪽 지역 방향으로 갔을 때 그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교통 주차질서 확립을 요건으로 해서 이 목적에 의해서 설치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다른쪽에 주차장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로 이면에 그런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설치되었을 때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다른 차가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텐데 무조건 그 등록된 차 아니면 다른 차가 주차할 때는 스티커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구획선을 긋는 원인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자리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해서 다른 쪽으로 차를 유도시킨다는 것은 주차질서 확립목적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전일주차, 야간주차, 주간주차,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줄 아는데 어떤 경우에

는 한 집에 차가 두 대 내지 석 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 한 대만 대지요. 그러면 다른 차는 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집에 등록된 차가 소유자가 다른 차도 지금 주차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만 잠깐 답변 듣고.....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등록된 차만.....

○金鍾來 委員; 그러면 한 집에 두 대, 석 대 있어도 다른 차는 대면 안 됩니까?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등록이 안 되었으면.....

○金鍾來 委員;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실제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실제 그래요? 제가 어제 강서구청에 알아보니까 지금 방문 차량을 스티커를 주더군요. 그래 가지고 등록된 사람이 방문 차량이라고 거기에 표시를 하면 스티커를 부과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다르잖아요.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그 얘기가 아니고, 상시 주차하는 차는 등록되지 않으면 안 되고 방문 왔거나 잠시 댄 차 아닙니까? 주차제에 대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자치구마다 적용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강서구는 그냥 그 집 차 번호에 주차권을 주는 모양인데 그것은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달라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민원이 있어요.

하나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등록된 차가 없을 때는 다른 차라도 잠시 좀 대야 되는데 못 대게 하니까 불법주차로 유도를 하고 소통 방해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차를 대도록 해 주었더니 원래 등록된 차가 돌아왔는데 자기 자리에 다른 차가 대어져 있으니까 자기는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돈 주고 등록까지 다 했는데.....

○金鍾來 委員; 그런 말씀 이해는 됩니다만.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를 바꾸도록 금년도에 방침을 바꾸고 지금 자치구 교육중에 있는데 매 구획단위로 차량을 지정해 주지 말고, 10개 또는 20개 단위로 주차면수를 한 블록으로 묶어서 그 블록 지정해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20대 차량이 한꺼번에 늘 다 대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는 빈 자리가 많으니까 어디 대든 간에 빈 공간에 댈 수 있으니까 그런 민원 야기를 줄이도록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많이.....

○金鍾來 委員;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구획선 안에 주차가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등록된 차가 왔을 때, 요새는 전부 다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휴대폰 전화번호를 다 적어 놓아요. 그러면 이동할 때 연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안 왔을 때는 견인을 하든지 부과해도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빈 구역 안에 잠시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세를 늘리기 위한 세수확충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CNG 충전소 문제에 대해서 서남권,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실 대기보전과에서 설치는 합시다만, 설치한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양하수처리장 내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CNG 버스충전소 자체는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만약에 차고지 장소가 비좁다든지 없다든지 해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쪽에 방향을 정해서 설치한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공항버스, 영인운수, 상마운수 같은 부분은 제가 교통관리실에도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관리실에도 물어 봤습니다. 한 30평 정도면 버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 다 차고지에 여유평수가 30평 정도가 남아돌아요. 그런데 굳이 가양하수처리장에 설치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치하는 환경관리실에서 하지만 장소부분에서 협의는 교통관리실하고도 같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다음에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미끄럼방지시설 부분에서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분기마다 하는지 매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청과 서울시 행정협의회가 있지요?

행정협의회는 경찰청과 우리 서울시 교통관리실과 사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토

론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미끄럼방지포장 시설에서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물론 작년부터 미끄럼방지시설은 우리 서울시로 이관되었습시다만, 교통관리실에서 몰랐습니까, 알고도 넘어갔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만,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침에 위배된 이격식 포장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의 다 서울시는 558개소 미끄럼방지시설 가운데에서 513개소를 이격식 포장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격식 포장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지침을 내려 주었어요. 지침을 위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먹어야지요.

그런데 교통관리실에서는 무슨 얘기하면 서울지방경찰청과 행정협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법전을 보니까 道路交通法 104조에서 이 법에 시장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제71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에다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인 모순이 아닌가, 그런 부분 만약 알았다면 국회나 이런 건의를 통해서라도 어느 한쪽으로 조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법과 아울러서 지금 도로부분에 아까 미끄럼방지 포장시설은 경찰청에서 시설 관리하다가 작년부터 서울

시로 이관되었는데 아까 이 법에 의해서는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령에서는 위임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서울시로 이관되었는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법 자체에 대해서 모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신 바에 의하면 횡단보도 하나 지역주민들이 필요해서 선을 그어달라 하면 보통 서울시에서 하면 한달 이내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항이라도 지방경찰청으로 이관돼서 하는 사업 같으면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행정편의 위주로 나가고 있다, 이런 불편한 제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만약 제도적인 문제 같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지하철상가하고 또 지하상가가 있지요? 그런데 지하상가는 건설위원회 소속이 관련되고 지하철상가는 우리 교통관리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지하철상가하고 지하도상가에서 임대료 같은 경우만 해도 평당 한 3.5배 차이가 나고, 지하철상가는 평당 103만원이면 지하도상가는 30만원이에요. 보증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한 1.2배 차이가 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하상가가 좋은 조건이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납부방법도 지하철상가는 현금 일시불 납부고, 또 여기 지하도상가는 현금도 할 수 있지만 보증보험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체이율도 지하철상가는 25%고 지하상가는 지금 15%입니다. 또 재계약여부도 지하철상가는 3년마다 입찰하고 지하도상가는 기존 임

차인에게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임차권 양도까지도 지하철상가는 금지하고 있는데 지하도상가는 허용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지하철상가하고 지하도상가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저희들이 그림을 보더라도, 또 현장에 가 보더라도 오른쪽과 왼쪽 차이입니다. 전혀 위치나 규모, 또 운영방법, 환경위치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는데도 방금 임대료 보증금, 또 재계약여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불이익이 지하철상가에는 오는데 지금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시행한 지하철상가 부분에서는 관계내부규정으로 처리하고 있고 여기 지하도상가 부분에서는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조례로 하고 있는데 조례가 상위법 우선이지 않습니까, 내부규정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하철상가도 우리 교통위원회 조례로 만들어서 같이 동일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喜甲;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東郁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郁 委員; 마을버스주차장 차고지에 관해서 제가 좀 하나 더 여쭙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사용 만료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기간이 끝나면 해당 청에 변경신청을 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는 마을버스주차장 사용계약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현재 서울시에 주

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버스 업체나 그런 것들이, 특히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은평차고지처럼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해서 박차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부분인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을버스부분은 완전히 빠져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민원을 하나 접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그린벨트에 위치한 주차장은 안 되는 부분이고, 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은 공람 후 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야 하며 주민의 반발이 있을 시에는 마을버스 면허가 취소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에는 신고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지금 현재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그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쓰다 보니까 이 마을버스업체는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면 주차장을 임대할 만한 공간은 마땅히 없고 그 만한 비용도 사제 땅을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을버스를 댈 만한, 주차할 만한 주차장을 빌릴 만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승주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위에 시내버스 정규버스의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환승주차장을 보면 낮에는 상당히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밤에는 거의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야간에 길거리에 박차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이것은 또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민의 반발이 생길까봐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환승주차장을 쓰면 가격도 싸지고 따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좀 빈공간인 환승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보충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喜甲;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오후에 지하철건설본부의 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통관리실에서는 짧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오늘 오전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요점을 파악해서 해 주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답변할 수 있는 것부터 답변하고 나중에.....

○委員長 金喜甲; 그러면 약 3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답변준비를 좀 해주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35分 會議中止)

(11時 4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喜甲;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교통관리실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답변 올리겠습니다.

具哲會委員님께서 인천 국제공항 버스 행선지 표시가 외부에 있는 것과 내부가 달라서 승객이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행 초기라서 다소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더 철저히 계도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회계제도를 공항버스에도 적용토록 해야 할 것 아니냐, 언제부터 할 것이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요금수입 투명성 확보와 승객편의를 위해서 교통카드 도입 확대를 저희들이 전 버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버스에도 교통카드 도입을 준비중에 있고, 도입과 맞추어 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공항버스에도 표준회계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의 체불임금을 위한 장기 저리용자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업체에 알려주고 많이 활용하도록 촉구했고, 그 결과를 수합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趙成大委員님께서 브랜드택시가 어떻게 되었느냐, 추이를 그 추진과정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브랜드택시 추진은 사실 의회의 많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었습시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 사업자들은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만, LPG 가격이 급등하는 유가정책의 전환 탓에 무차별적인 요금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48%의 전 택시에 대한 요금인상 요구를 받고 있고, 이 요금인상은 서비스 개선이 담보되지 않은 무차별적인 요금인상이고, 정치권을 비롯해서 각 관계요로에 탄원서를 넣고 직접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지금 업계가 물론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인정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서민경제가 어렵고 물가불안이 있는 이때에 요금인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당초에 브랜드택시는 의원님들 아시는 대로 30% 요금인상을 해 주면서 반대급부로 영무협약을 체결해서 서비스 개선을 담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 다만, 지금 업계는 아무 서비스개선 담보 없는 무조건적인 요금 48% 인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겠다는 업계가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소극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금인상은 하반기에 가서 검토하도록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고, 브랜드택시는 지금 요금인상 없는 브랜드택시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 요금인상 때 브랜드택시로서 서비스 개선에 앞장선 택시를 중심으로 인센티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금인상을 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趙成大 委員;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일문일답 좀.....

○委員長 金喜甲; 네.

○趙成大 委員;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그런 구구한 답변보다도 의회에서 힘들게 정말 작년 추경을 다루면서 의원들끼리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까지 논의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구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면 경과보고라도 지난 3월에도 나와서 했어야 되고 2월이라도 나와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의하니까 이제사 구구한 답변을 하고 있으면 안건상정이 오면 우리 의회에서 누가 그것을 처리해 주려고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방치시켜 놓고 있다가.....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2월, 3월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불과 한 2주일 전에, 요금인상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거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브랜드택시를 그대로 밀고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전에 2,3월에는 그렇게 방향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방향전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린 대로 너무 오래 끌다가 보니까, 물론 오래 끈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잘하고 더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래 끈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 동안에 즉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LPG 가격정책의 변화 때문에 업계 요구사항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趙成大 委員; 시장님과 결정한 것이 작년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까지 해주었어요. 그러면 예산 18억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그것은 지원해야지요. 요금인상이 없는 브랜드택시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趙成大 委員; 그러면 월드컵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는데 일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것을 할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택시업계에서 20% 올려달라, 30% 올려달라 하고 매일.....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택시업계는 48%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趙成大 委員; 그렇게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인상하지 않는 브랜드를 한다고 하면 누가 돈들여서 차를 대차폐차 해 가지고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택시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해도 대차폐차 하지 않고 브랜드로 안 하더라도 지금 인상을 시켜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실장이 답변한 것은 상식밖의 얘기다 이거예요. 못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왜냐 하면 대폐차처럼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차량이 다 되어서 대폐차하는 것이야 어차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고, 또 당겨서 대폐차는 지금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깨끗한 차량에 대해서 브랜드택시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과거에 브랜드택시에게 요구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규정해서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면 하반기에 요금인상을 검토 하겠다는 것입니다.

○趙成大 委員;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통실장으로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없다.....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이 이상 더 확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브랜드택시의 경우에도 우리가 빨리 의견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인데 너무 오래 끌다가 보니까 상황이 변해 가지고 LPG가격이 폭등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통제범위를 벗어나서.....

○趙成大 委員; 너무 오래 끈 것이 아니고 작년 6월에 추경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달라 그래 가지고.....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위원님께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계속 끈 거지요.

○趙成大 委員; 아니, 작년 1월 15일에 해서 예산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3,4개월 토론해 가지고 6월 추경에 되었어요.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그것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위원님은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이왕이면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정부의 LPG 가격정책이 바뀌어 버리니까.....

○趙成大 委員; 실장님, 그 LPG 가격하고 브랜드택시 추진하고는....., 그 브랜드택시 추진하는 데 18억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3월, 4월 그때는 예산을 다루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6월 추경에 다루었기 때문에 예산 18억원을 6월에 세워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다 이 얘기에요. 그 당시는 LPG 가격은 관련이 없어요.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18억 지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브랜드를 하든 안하든.

그게 콜택시 장착하고 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 아납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은 이왕이면 브랜드 하는데 종합적으로 하면 좋다, 이런 뜻이었고, 18억 예산집행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LPG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브랜드택시에 여러 가지 의무조항을 부과하면서 30% 가격 올려주겠다고 그런 것인데 업계는 의무조항도 하나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48% 요금인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옛날식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趙成大 委員; 자꾸 LPG 가스값 인상관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일단 추진하면서 진입도 못 해 보고 결렬되는 것 아납니까, 결론은? LPG가격을 올렸으면 올린 만큼에 대해서 대책을 해 나가야 할 텐데.....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위원님은 그러면 제가 교통관리실장이 정책을 잘못 추진하고 일이 잘못되기를 바라십니까?

○趙成大 委員; 잘못되었으면 사과도 하고 정정을 해 나가야지요.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그게 아니지요.

○趙成大 委員;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제가 말씀드리기는 위원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실 수 있지요.

저희들은 그러면 반대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납니까? 그래서 여건이 조성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정책

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 동안 우리의 컨트롤 범위를 벗어나는 연료가격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에 업계의 주장이나 업계의 기호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趙成大 委員; 그러면 그 문제는 다음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콜택시는 지금까지 1만 7,000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콜택시가 숫자로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이용의 편의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브랜드택시나 대형택시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정책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8억원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단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락동에 대형 유통단지 부지를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상반지에 이 부지를 확정을 해서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배송단지도 상반지에 부지 확정을 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봐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조례개정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장거리 도시형 버스와 지역의 중요지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와의 서비스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

에 서로 규정을 달리 하고 있고, 또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기능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金東郁委員님께서 동부간선도로 수락산 부근에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산인 도봉산과 도봉산역 관련표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신 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만약 없다면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서 도봉산을 가리키는 표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전용도로가 한번 진입되면 중간회차가 어렵고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름 그대로 전용도로입니다.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기 때문에 일반차량은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로계획의 원래 목표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이 도로목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입하면 중간에 돌아나올 수 없습니다 하는 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해서 불필요한 차량들이 이 도로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구를 하고 있고, 통행료 정책도 기획예산처와 건교부가 중심이 돼서 걱정된 통행료를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통행료 수준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金東郁 委員; 그 표지판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톨게이트 이전에 인천으로 빠질 수 있는 도로는 진입도로는 되어 있더라고요.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그것은 사실은 이용하면 안 되는 도

로죠. 왜냐 하면, 지금 앞으로 전철이 도입되고 다른 길이 있으면 몰라도 국제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은 가급적 불필요한 차는 안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항당국의 취지고 중앙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1개 밖에 없는 길을 보호해야 앞으로 전철이 투입될 때까지 비상시에 또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천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길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용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金東郁 委員;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도로 통행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런 실수가 없도록 표지판 자체를 잘 설치한다든가.....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네, 알겠습니다.

밴택시의 실효성을 물으셨는데 아직 밴택시가 출범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밴택시라고 안 부르고 대형택시라고 부르는데 9인승 내지는 7인승짜리로 해서 6월에 출발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해야 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로는 신청자가 충분히 많아서 저희들이 현재 400대를 1차로 출발시키려고 하는데 이 400대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봐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郁 委員; 문제가 생겨서 축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따라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문제도 金東郁委員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등록제로 해서 문제가 많지 않느냐, 여러 등록회사가 많이 과당경쟁을 하고, 사실은 등록제로 법령이 바뀔 때 우리 시로서는 위원님들 기억하십니까만, 아주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주장해서 등록제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시가 그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설득한 것이 등록제가 되면 아무나 다 등록하니까 당신네들이 더 어렵게 되고 그나마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인가제로 가는 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도 자기 작은 이해 때문에 해서 건교부에서는 사업자들이 원하니까 등록제로 가자 해서 가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로서는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너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기를 등록을 무조건 다 받아주지 말고 수요에 맞추어서 적정한 개수의 회사들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등록을 받도록.....

○金東郁 委員;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수하고 조건을 갖추면 다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행정지도를 시가 수요에 비추어 너무 많으면 다 망하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공익에 맞추어서 공익을 이유로 제한을 하도록 해야죠.

○金東郁 委員; 그래서 저는 물론 사업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시에서 무책임한 답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업체도 보호해야 되고 시민들의 편리도 같이 함께 해

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초창기에 하다 보면 버스가 자주 오고 그러면 시민들은 편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시민들은 다소 편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적정수요가 시민을 수송할 수 없으면 회사숫자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요에 맞추어서 적정한 숫자의 노선으로 관리하도록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차고지문제는 일단 마을버스 업체들처럼 영세한 업자가 자기 전용차고지만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주차장을 2년 이상 장기임대를 해서 차고지 쓰도록 하고 있는데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지금 장기임대를 1년 정도밖에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로는 환승주차장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황을 봐서 그럴 필요가 있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鍾來委員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는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고, 가양하수처리장 내의 CNG충전소 두는 문제는 이것은 환경관리실과 건설부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나가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환경관리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시설의 이격식 포장도 가급적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몰랐느냐, 저희들이 이것을 경찰로부터 인수받은 시점이 99년 5월에 인수받았습니다. 인수받

고 난 다음에 우리시가 가급적 이격식으로 하지 말고 전면처리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업무 위임에 대해서는 법과 령에서 위임의 정도에 대한 모순이 있는데 이것 문제제기를 왜 안 하느냐, 과거에 수차 수도권행정협의회나 정부과제로 이 문제가 관계기관에 다 이미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지방경찰화되면 이런 부분은 다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소된다고 이렇게 정부는 판단하고 있었던 것인데 지방경찰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 기회 닿을 때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경찰의 위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돼서 쉽게 빨리 이것만 별도로 수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金鍾來 委員; 그 다음에 그 문제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들이 금년에 538억, 작년엔 502억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경찰청에다가 도로교통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나 의회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관리·감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체제를 좀 구축해줘라 하면 뭐라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느냐 하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 나간 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행정협의회가 결과적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르면 결과적으로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38억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미끄럼방지 시설도 제가 가장 조그만 부분에서 시민한테 제보를 받고 이런 부분

하고 전혀 관계없이 고가도로의 미끄럼방지 이격식 포장을 하면 좀 덜렁거린다 이 문제를 하나 가지고 제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신신호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나 우리가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538억 예산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의아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신호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신신호같은 것은 그저께만 해도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외부전문가들하고 또 경찰청 관계자들 같이 불러놓고 이것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런 협의를 계속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논하고 걱정하고 협의하는데 실제로 감사를 하면서 조사를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그런 조사권이 없고, 또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자고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산하 기관만큼 철저하게 관리는 못한다 그 뜻이지, 그렇다 해서 경찰이 정말 얼토당토 안하게 안한 것을 했다든지, 또 전혀 다른 것을 하고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못합니다.

○金鍾來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미끄럼방지 예를 하나 들자면, 97년 8월에 건교부 지침으로 내려주었는데도 그동안 전혀 지침 자체를 무시해 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격식 포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95% 정도 이격식 포장 해왔던 것이에요.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우리시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가 직접.....

○金鍾來 委員;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기획과장께서 저한테 와서 부속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인수받아야 될 것을 인수 못받았다, 직무유기했다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한 부분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속물이나,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 생각돼요. 도로교통부분에서 경찰청예산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위원님 지적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왜냐면 우리 과장 생각하고 다른 것이 이것이 안전시설이지 도로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도로 부속시설로 해서 경찰로 떼 냈느냐, 처음에는 대단히 큰 권한인 줄 알고 경찰이 했는데 계속 얻어맞기만 하고 비판만 받고 별 실속이 없으니까 이럴 것 같으면 경찰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서울시에 주는 것이 낫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돌려주려니까 안전시설 같으면 법에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못 주죠. 도로 부속시설로 이름을 고쳐야, 도로에 붙어 있으니까 도로 부속시설이라고 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로 도로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도로 부속시설물이나, 그것은 도로주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안전시설이죠. 그렇지만 경찰이 편의적인 해석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위원님 얘기처럼 저희가 편의적으로 해석하든 뭐 하든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니까 오냐 알겠다 하고 받은 겁니다, 그냥.

○金鍾來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른 부분에서도 주라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횡단보도 하나 갖는데도 지역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면 한달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을 보았어요. 3개월, 4개월 걸려요.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가급적 기회 있는 대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상가와 지하도상가가 임대료수준이나 임대방법 등에 차이가 많고 이래서 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하철상가하고 또는 일반적인 지하도상가는 조성경위가 다릅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지하도상가는 원래부터 민간상인들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서 지하도상가를 조성하고 초기에는 그 사람들이 조성했기 때문에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주고 그것을 인계받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시가, 지하철 상가는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하철에서 다 건설한 것이지요, 조성경위가.

그래서 지금 임대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지하철 상가는 조성원가 중심으로 임대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초로 감정을 하는 것이지요. 감정해서 이 상가는 연간 수입이 얼마 오를 것이냐, 그것을 추정해서 거기의 몇 %를 임대료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이제는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해 왔던 전례 때문에 조성원가 중심으로 상가 임대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수익성하고 관계없이. 전혀 기준이 다르지요.

사실 문제가 안되었을 텐데 문제가 된 것은 을지로역 입구처럼 상가가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도 상가와 지하철

상가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임대료 차이가 이 만큼 나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2부시장님 주재로 관계관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지금은 여건이 너무 달라서 한꺼번에 합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장기적으로는 다 같은 방식으로, 수익성 기준으로 임대료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계약보다는 일반경쟁 입찰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까지 추진해 왔던 전통이 있는 것인데 하루아침이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그렇게 목표는 세우고 지금까지 관행을 존중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도록 시가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상가는 현재 3년간의 계약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네들 상가 시설도 해야 되고 투자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하도 상가는 현재는 아직 재산권 인계가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은 안됩니다만, 2005년 이후에는 이것도 공개입찰로 바꾸도록.....

○金鍾來 委員; 그런데 말씀 도중에 대부분 근본적인 큰 테두리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공개입찰 방향으로 하는 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

공개입찰 하는 의의가 여러분들한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 시세도 확충시키는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상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의도공원의 자전거 대여라든지 매점 같은

경우는 그냥 주인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없어도 영업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상가 커피숍 같은 데는 내부치장을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치장 안하면 손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연속성이 없게 해 준다면 계속 치장을 안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3년간 계약기간을 5년 정도.....

○金鍾來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상가하고 지하도 상가하고 임대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태생적 출발이 틀렸으니까. 그리고 지하도 상가도 기부채납 기간 20년이 지났지요? 그리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조례로.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의회에서 정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개정건의안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의회하고 타협을 해야지요.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당연합니다. 건설국에서 방향이 서면 조례 개정을.....

○金鍾來 委員; 조례 개정을 하고 안하고는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세우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분들 만나 보니까 지하철상가 그분들도 그래요. 임대료 올라간 부분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연속성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장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2년 후에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 가게를 살려 봐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내가 그만둔다 하면,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 말년 되면 모든 것이 싫어지고 업무규율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나태해지고, 상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내가 일년 후에 그 만들 것을 지금 왜 투자합니까? 그리고 신경은 왜 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수입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장사 안 되면 세수입 줄어들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가가 번영을 못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세수확충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서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양 공사에 얘기해서 장기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임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金鍾來 委員; 그리고 보니까 1986년에 지하철 상가 분양할 때 분양조건이 1년 단위로 임대분양을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재계약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계약서 위반, 그 다음에 상가규정 미준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 위반이나 상가규정 미준수 했을 때는 임차인을 매년 바꾸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준수하는데 근본적으로 당초 계약의 그런 것을 위반하고 한다면 우리 서울시의 신뢰성이나 도덕성이 문제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도 상가와 지하철 상가 부분에서는 우리 서울시도 세수입에서..... 지하철 상가가 좀더 장사가 잘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 시가나 감정평가, 이런 부분에서 세수

입은 그대로 지하도 상가하고 같이 안해 준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분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장기 우리 서울시로서도, 그분들로서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네.

○金鍾來 委員; 이상입니다.

네, 대답했으니까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林東奎 委員;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金喜甲 委員長, 趙成大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趙成大;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東奎 委員; 林東奎委員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어차피 작년에도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을 인상을 했는데 지금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이 임금인상이나 각종 수당 인상 때문에 파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대비책을 내놓으셨는데 세제상 지원도 있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일부 재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버스회사는 계속 도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된다고 본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문제도 사실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되면서 마을버스도 상당히 어려워 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

지금 택시요금은 택시회사에서 48%를 의무조항 없이 인상

요구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택시회사는 IMF 전보다 LPG 값은 인상되어서 요금인상 요인이 증가되고는 있습니다만, 택시의 운행 가동률은 상당히 높아졌다, IMF 전에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60%~70%밖에 택시 운행을 못했는데 지금은 택시기사 분들이 많아서 거의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95%에서 거의 100%까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설득을 해서 일부 문제점을 흡수하도록 해서 요금인상을 억제해야 되겠다, 그 문제는 정부도 지금 당초에 경제성장률을 잡았던 것을 4% 이하로 낮추고,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런 요금인상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후반기에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우선 버스에 대한 근본대책을 물으셨는데 현재 버스가 어렵고 또 장기적으로 버스가 더 어려워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버스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직도 400만 명 가까운 수송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버스의 역할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버스시장의 변화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그나마 대형화시켜 나가야 군소 회사들, 경쟁력 없는 회사들은 앞으로 점점 축소시켜 나가고, 또 노선조정도 더 합리적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요금 인상부분은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임금인상이 제대로 안 받아들여져서 과업선언까지 가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작년에 근 10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경유가격이 상당히 크게 오르고, 그 다음에 수송수요가 지하철이 요금인상 이후에 7호선과 8호선 두 개 노선이 추가로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개통으로 인한 버스 분담률이 떨어지고 또 경유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그래서 사실 수지가 더 줄었다는 것입니다, 요금이 올랐지만.

그런데 노동자들은 12.6%라는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풀려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부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경제부처 장관들이 다 합동으로 이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요금인상은 마을버스가 지난 3년간 저희 시가 직접 관리는 안했습니다만, 요금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마을버스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을버스의 강점의 하나로 요금이 싸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3년쯤 요금인상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요금이 너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요금인상 자료는 그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원가검증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앞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다시 분석해서 적절한 율의 요금인상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林東奎 委員; 그럼 언제쯤 인상을?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이것도 하반기에 가서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요금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택시도 물론 어렵기는 합니다, 그 동안 LPG가격이 상당히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위원님 지적처럼 과거보다 실차율이 높아져 지금 6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차율이 높아진 것도 이유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趙成大委員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요금인상 없는 브랜드택시를 하겠다는 것은 과거처럼 실차로는 못합니다만, 그럴 때는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대신에 서비스개선, 시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도록, 그것을 잘 지키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적정분의 요금인상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林東奎 委員; 사실 본위원이 지금 택시가 과거에는 택시를 좀 여유있는 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셨는데 이제 택시가 실지 거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차율 가동률 60%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한 90%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거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조사해 봐주십사, 그리고 물론 택시회사들이 충분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LPG값도 오르고 모든 게 오르니까 어렵겠지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버스, 마을버스, 택시요금 계속 오르면 상당히 서민들한테는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경제가 또 어렵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가 올리는 시기를 잘 조정

을 해서 또 금액도 잘 책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成大;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보고하신 소관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33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趙成大;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오늘 오후에는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崔昌植 地下鐵建設本部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3월 지하철 6호선 미개통구간이 완전한 개통구간으로 제2기 지하철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은 지하철 9호선의 착공

준비와 내년에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하철 관련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해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기 지하철 건설시 보여주신 열과 성을 다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地下鐵建設本部所管懸案業務報告

○委員長代理 趙成大;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崔昌植 地下鐵建設本部長 나오셔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6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그 간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시공업체의 파산으로 무정차 통과했던 이태원, 한강진 등 4개 정거장이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3월 9일 개통함으로써 응암역에서 봉화산역을 잇는 지하철 6호선이 전구간 정상 운영하게 되었으며, 2기 지하철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지하철 전시회도 한달 동안 총 2만 1,560명의 시민이 관람하는 등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보다 친근한 지하철로 만들기 위해서 6호선 녹사평역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토록 신랑·신부대기실도 설치하였습니다.

2001년 상반기 착공예정인 9호선의 보상 등 착공준비를 위해 김포공항에서 반포까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유치 대상

사업으로 기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정부민간 투자지원센터의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의 검토가 완료된 후 내달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권고하는 등 본격적인 민자유치에 들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적고시,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세기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지하철로 설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地下鐵建設本部 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成大;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東奎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東奎 委員; 林東奎委員입니다.

지하철 9호선문제 때문에 본부장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9호선 말이죠. 민자유치 관계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자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어떻게 되고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 참여할 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를 통과하는 구간 때문에 상당히 서울시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소음진동영향평가 결과에서도 공사중이나 영업 중에도 아무 국회의사당 건물이나 이런 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로 노선을 가는 것을 일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승낙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땅을 다른 용도로 쓴다 이런 것도 일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지하를 3·4층까지 건설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데도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위원회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좀더 강력히 국회에다가 요구도 하시고, 또 국회 쪽에 설득을 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인천시에서 계양역까지 연결하는 것을 서울시가 건설비를 부담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너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천시가 말이죠.

거기도 지방자치단체고, 또 우리 서울시도 지하철건설부채를 거의 5조에 가까운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 인천국제공항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인천시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것이지 서울시만 쓰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

천시에서 나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成大; 林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鄭東一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東一 委員; 鄭東一委員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9호선, 직선으로 갈 때 소요되는 예산과 또 곡선으로 여의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설을 할 경우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국회의사당 상징성으로 역을 유치한다고 합니다만, 외국에 비유를 하시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국회의사당이 주변 상가나 이런 데하고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굳이 돌아서 곡선으로 해서 국회의사당역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추후에 다른 노선이 10호선이나 이렇게 결정이 될 때 그 인근을 지나가게 될 때 그 때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되고, 지금 지리적 환경으로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월드컵주경기장 전용통로, 그 통로가 애초에는 설계가 안되어 있었지요? 늦게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있는 통로하고 역사 통로하고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수용이 가능한지, 또 아니면 다른 통로를 하나 더 만들

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기 지하철 급곡선 흡음재, 이런 경우는 미리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보면 5호선, 6호선, 7호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구간은 개통한 지 얼마 안되었는데 흡음재 같은 시설을 총괄적으로 같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이 추가된다는 것은 이중으로 예산낭비도 되고 모든 인력낭비와 아울러서 불합리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成大; 鄭東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네.

○委員長代理 趙成大; 林東奎委員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시고, 鄭東一委員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서면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鄭東一 委員; 서면으로 하지요.

○金聖泰 委員; 오늘 질의내용은 서면답변으로 같음하는 것을 동의하고 회의 산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趙成大; 오늘 답변은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을 원하시니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보고하신 소관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4時 39分 散會)

○出席委員

金喜甲 朱世晩 趙成大 具哲會

金東郁 金聖泰 金鍾來 呂鼎九

鄭東一 安秉昭 林東奎

○專門委員

金宗植

○出席公務員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